

##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박정균\* · 황승연\*\* · 김중백\*\*\*

### 목 차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V. 결론 및 제언
III. 분석대상 및 분석 변인	

### 〔 논문 요약 〕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연구가 실증적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동시에 실증적 연구 과정에서도 중국 조선족의 범위를 대학생, 유학생,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시켜 전반 조선족 정체성의 설명요인을 제대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중국 조선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족정체성의 경우 연령, 출신지역, 성장환경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국민정체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정체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과 성장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모두 투입한 다중회귀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출신지역,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은 여전히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독립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교육수준 및 한국체류상황 등이 있었다.

주제어: 중국조선족, 정체성, 국민정체성, 민족정체성, 독립정체성

\*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학원 사회학과 조교수,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학과 교수, 공동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 I. 서론

중국 조선족은 대체로 19세기 중엽부터 자발적 혹은 강제로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의 후예이며,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재중동포', '재중교포', '재외한인', '중국동포', '연변 조선족', '조선족'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한 후 중국 조선족은 청(淸)정부와 중국국민정부(中國國民政府) 및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학교를 세워 후대들에게 민족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민족문화와 교육전통을 지켜왔다. 또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중국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3성(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을 중심으로 폐쇄적 자립경제 체제하에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은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 삶의 동질성의 기초였던 폐쇄적 농촌 공동체의 해체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족의 급격한 인구유동, 언어 및 교육 환경의 변화, 경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혈연적 유대가 깊은 한국사회와의 빈번한 접촉 과정에서 교류 초기의 최하층 노동자 혹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임금체불 등과 같은 차별대우 및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을 혈연적으로 그리던 동포가 아닌 3D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외국인 노동자로 보는 시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고국'이 아닌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선진 산업국'이라고 여기는 관점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인식하는 자아는 “조선민족을 모태로 한 민족이며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자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중국과 남북조선 사이의 경계상황에서 실존<sup>1)</sup>하는 민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 체류과정의 경험을 거쳐 중국 공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비해 우선하고 있다는 관점<sup>2)</sup>과 조선족의 문화와 정체성은 중국과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sup>3)</sup>이라는 엇갈린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이론적 논의 말고 실증적으로 조선족 정체성의 수준과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중국 조선족 특히 한국에서 체

1) 임진철, “조선족 사회 발전전략과 초록 민족공동체 발전구상.” 재한 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 〈동북아시아시대 조선족사회 발전을 위한 귀향 아리랑 문화축제와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5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자료집, p.31. 참조

2) 정판룡, 『세계 속의 우리 민족』 (심양: 료녕출판사, 1996).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학회 1998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3)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2000.

류 중인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는 중국 조선족을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혹은 외국인 유학생의 범주에만 국한시킨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2005년 직업별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교수, 연구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득 및 생활양상도 천차만별이다. 즉 중국 현지의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들도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으며 문화수준 및 한국 체류 목적도 부동하므로 한정된 계층에 속한 일부 조선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국 중심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 앞서 논의한 것처럼 19세기 중엽부터 자발적 혹은 강제로 중국에 이주한 조선인의 후예이다. ‘모국관’ 혹은 ‘고국관’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국 조선족이 생각하는 ‘모국’ 혹은 ‘고국’은 한반도일 수도 있고 분단국면이 60년 지속된 현재, 조상의 이주 전 거주역의 부동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을 고국으로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은 조상의 한반도 내 거주지가 북이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난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인가 중국문화인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식의 이분법적 해석은 북한의 민족적·문화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한국문화 = 한민족문화’식의 사고방식은 북한동포를 포함한 전체 재외한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한국 중심적의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변화의 상이성으로부터 구별되는 동일성이며”, “다양한 실체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나 포괄적인 성격의 동일성이고, 인성(人性)의 단일성과 연속성”이다.<sup>4)</sup> 이러한 정체성이란 용어는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및 일체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말이다.

4) 임채완·김경학,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1호, 2000.

즉 정체성은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귀속감 내지 일체감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발달되는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주는 통합된 자기상'이라고 요약하여 정의할 수 있다<sup>5)</sup>.

다민족국가에서 민족집단 혹은 인종집단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이 민족적·국민적 상징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동시에 타집단(혹은 국민)에 의해 인정받게 될 때 형성된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정체성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을 포함한 타 민족집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 1) 민족정체성

민족집단은 원초적인 집단으로서 개인들이 자기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집단이다. 민족정체성은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공유된 민족적 특성들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 집단에 느끼는 소속감(a sense of belonging)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이것은 한 개인의 자아 개념(self-concept)의 일부분인데 이것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를 스스로 정의하거나 또는 타인들에 의해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sup>7)</sup>.

민족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민족 집단에의 귀속의식·연대감·공동체 의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이때 민족정체성은 '집단에의 연대감 내지 소속감', '공동체의 의식', '집단적 아이덴티티는 특정 집단(민족·국가·동료)과의 내면적인 연대감 내지 귀속의식', '공동체와 자기 동일화'등을 지칭한다.<sup>8)</sup> 둘째, '민족의 특징'과 같은 타집단과 구별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독특성·차별성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민족정체성의 논의에 있어 위의 두 가지 의미-한 개인의 집단에의 소속감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민족 집단에 대한 정의-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양자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다. 개인이 민족적 상징에 의해 정의되기 위해서는 민족적 상징의 근원이 되는 민족 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윗글에서 우바(Uba)는 민족정체성이 ①한 개인이 자신의 민족 집단에 대한 일반 지식, 신념, 기대들을 일으키고, ②그가 사물, 상황, 그리고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들의 의

5)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6) 윤인진, "채미 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在外韓人研究』 제6권 1호, 1996. Shibutani, T., and K. Kwan.,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96.

7) Uba, L.,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1994.

8) 에릭슨 (E. H. Erikson), 김병수 역, 『자아발견과 인상관리』 (서울: 경문사, 1995).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1993).

미를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인지적·정보처리적 틀(framework) 또는 필터(filter)로서 기능하며, ③ 그의 행위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민족 영속주의 입장의 민족정체성은 세계화가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변화가 오더라도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세계 문화는 보편적이고, 시간적으로 무제약적이므로 전통이나, 신화, 그리고 대대로 계승되는 문화, 정치적 상징을 중심으로 수립된 종족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절충적 시각의 민족정체성은 민족주의는 여전히 그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는 논의와 이제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류에 떠밀려 민족주의는 소멸할 것이라는 양극단의 논의 속에서 세계화가 민족, 국가 그 자체를 변모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로 인하여 민족정체성은 그 형식은 남아있더라도 그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 2)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은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것들 간의 경쟁과 전쟁으로 점철되는 국제정치체제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다.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임(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혹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9)</sup>. 즉 국민정체성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으로서 상상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 또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0)</sup>. 동시에 국민정체성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s)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일반적으로 국민정체성은 종족적-혈통적 모델(Ethnic-genealogical model)과 시민적-영토적 모델(civic-territorial model)로 구분될 수 있다<sup>12)</sup>. 종족적-혈통적 모델은 귀속적 속성이 강하고 민족의 구성에 있어 영토보다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또한 민족공동

- 
- 9) Burubaker, 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9.
- 10) Gellner, E.,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Hjerm, 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1(4): 335-347, 1998. Jones, F., “Diversities of National Ident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Australian Case.” *National Identities* 2(2): 175-776, 2000.
- 11) 정기선,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제1차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움』, 2004.
- 12) Habermas, J.,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B. van Steenberg,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20-35. London, 1994. Jones, F. L. and Smith, F.,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2. 2001.

체 혹은 문화공동체에 기반이 되는 동일 조상의 후손, 전통과 문화적 유산의 공유, 공동의 정치운명에 대한 집단기억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시민적-영토적 모델은 민족의 구성에서 영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선택적이고 자발적 속성이 강한 개념으로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와 같은 정치적 의지와 자본주의적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sup>13)</sup>.

Brubaker와 Smith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정체성 중 시민적-영토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국가는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보다 쉽게 수용하고, 인종·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종족적-혈통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이주민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낮아지고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4)</sup>

### 3) 독립정체성

조선인 이주민들은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민족집단을 형성하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전까지 줄곧 중국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조선측은 중국의 토착주민이 아닌 근대에 조선으로부터 이주한 과계민족에 속한다. 청정부(淸政府)는 비록 청조정부가 변강지구의 국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을 끌어들이며 변방을 건설하기 위해 제정한 정책인 ‘이민실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조선인 이주민들은 중국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선인 이주자들에 대해 강압적인 민족동화정책을 추진하여 귀화입적을 강요하였다. 청정부는 ‘치발역복’(薙髮易服)을 입적(入籍)의 상징으로 삼고 ‘치발역복’한 이주민만을 중국국민으로 인정하고 토지 소유권을 허락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개간한 토지를 몰수하거나 심지어 축출하였다. 조선인 이주자들은 귀화입적이 민족성의 상실을 전제로 하였기에 대부분이 이를 거부하였다.

국민정부(國民政府)도 동북의 조선인 이주민을 중국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정부는 그들의 통치구 내의 조선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릇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국민정부로부터 ‘거류증’(居留證), ‘신분증’(身分證)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민정부는 ‘동북행원’ 내에 ‘한교사무처’를 설치하고, ‘민주자유군’ 등 각종 조직을 통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축출하거나 억압·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계획적으로 조선에 송환시켰다<sup>15)</sup>.

다민족국가에서 소수민족 혹은 인종집단의 정체성은 민족적·국민적 정체성과 자신들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타민족 혹은 타집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을 때 완전히 형성된다.

13) 최 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5권2호, 2007.

14) Brubaker, 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Smith, A. D.,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1.

15) 조윤덕,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 (강원: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그런데 조선인 이주민집단은 국민정체성과 자신들을 동일시 할 수 없었고 또 타집단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족적 정체성과 자신들을 동일시함으로써 타집단으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 이주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국가 없는 민족으로, 민족억압과 차별 속에서 주변인 지위에 처해 있게 되면서 명확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다.

중국 조선족이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은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찍부터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민족자결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로부터 중국공산당은 동북 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였다. 1927년 10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제1차 당원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결의'에서는 동북 경내의 '중·한(韓)·일·노 인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산둥(山東), 하남(河南), 하북(河北) 및 조선에서 온 난민은 현지의 소작농, 고농, 자경농(自耕農)과 같이 일률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인은 그 어느 민족보다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 봉건군벌,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은 민족으로서 만주의 혁명적 농민의 한부분이며, 전투력이 있는 농민이며, 반일의 우군(友軍)이라고 하였다<sup>16)</sup>.

1945년 동북이 해방된 후, 중국공산당은 '화북항전에 참가한 조선의용군을 제외한 동북의 조선 거주민은 일반적으로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타민족과 일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민족평등원칙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토지개혁 과정에서 조선인 이주민의 생존에서 가장 절박한 수요로 했던 토지를 타민족과 평등하게 분배한 점이다. 다민족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집단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지위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타민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조선족이 중국국민임을 인정한 것이다. 토지개혁과 민족평등정책은 조선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성심을 유발하였으며, 스스로를 중국국민과 동일시하고 동시에 타민족으로부터 중국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점차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기타 민족과 평등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중국 국민으로 평등함과 동시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임채완)은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가리킨다<sup>17)</sup>. 따라서 한 개 민족이라고 할 때에는 혈연, 지연, 풍토적 환경을 같이하면서 오랜 역사적 공동생활을 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족정체성이라고 하였다. 국가의식은 매우 추

16) 조윤덕, 위의 글.

17)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1999.

상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애국심 혹은 민족의식과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국가의식의 개념을 규정하기 어렵지만 국가의식은 국가(nation)와 의식(consciousness)의 두 복합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의식(意識)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환경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또 의식은 개체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작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 또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식이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주<sup>19)</sup>는 “국가(의)식은 나라의 역사와 전통, 사회·정치적 체제와 조직, 정치적 이념과 지도성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인지적·정치적 이념인 지향성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정신생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다.”라고 하였다. 즉 국가에 대해 개인들이 갖는 인식, 감정, 가치, 태도 등을 국가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 조선족의 경우,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위치에 있으면서 중국의 漢문화 속에서 조선민족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들이 소중하게 또 자긍심을 갖고서 간직해왔던 조상들의 문화적 유산들이 중국문화 및 남북한사회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sup>20)</sup>. 즉 중국의 기타 민족과는 혈연적으로 다르나 중국국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혈연적으로나 언어적으로는 남북한 및 기타 재외한인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화적·정치적·경제적으로는 많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정체성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타민족 집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중국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조선족의 독립정체성은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한족(漢族)을 비롯한 기타 55개 민족과 구별되는 동시에 한국과 조선(북한)의 조선민족들과도 구별되는 중국 조선족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리킨다.

## 2.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한국 학자들은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관하여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은 조선족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며 20세기 초 중국

18) 차기태, “고교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인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9) 이상주,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조” 한국행동과학연구소(편) 『국가발전과 청소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7.

20) 황승연,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조사연구” 『아태연구』 제1권, 1994 .

에로의 이주로부터 시기별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과 조선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중정체성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sup>21)</sup>.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인 지식인 정판룡 역시 조선족을 ‘중국에 시집은 며느리’로 비유한다. 즉 조선족은 정서적으로 친가인 모국에 끌리지만 일단 중국에 시집은 이상 시가인 중국에 충성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22)</sup>

그러나 이와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강일의 ‘변연문화론(邊緣文化論)’으로 조선족의 문화와 정체성은 중국과 조선의 문화와 정체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주장이다.<sup>23)</sup> 김강일은 ‘며느리론’과 ‘모국-조국론’을 강하게 비판한다. 자신을 ‘며느리’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굴종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국과 조국을 구별하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며 조선족은 중국 국민이라는 자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조선족은 중국 내의 평등하면서도 구별되는 특수한 문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혈연적인 유대가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특수한 문화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해야 중국에서 국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족의 정체성은 흔히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정체성이며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항상 균형 있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립되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국국민(公民)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정체성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sup>24)</sup>

우선, 한민족 정체성은 생득적인 것이고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은 새로이 획득한

21) 강재식,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7호, 2000. 권태환,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강일·허명철, 『中國朝鮮族社會的文化優勢和發展戰略』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01). 김용범, “중국내 조선족의 국적과 이중 정체성” 『北韓』 제250권, 1992. 이종목,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족의 교육환경과 문제” 『99년도 사회과학연구소 해외한인연구 학술세미나』, 1999.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권2호, 2001.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제8월1호, 1999.

22) 정판룡, “중국 조선족과 남북관계” 『조선대 동북아연구』 제13집, 1996.

23) 김강일·허명철, 엮음

24) 윤인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것이라는 관점을 볼 때, 조선인 이주민 1, 1.5세대의 경우에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생득적인 것이지만 중국인 즉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자격의 획득은 새로이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49년 중국 조선족이 정식으로 중국 소수민족의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에 출생한 조선족들에게는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 역시 민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생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인의 한국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은 과연 생득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획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은 해외 한인들 중 유일하게 국가적으로 기타 55개 민족(한족 포함)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중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정치적 및 민족자치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국 조선족이 중국 사회에서 이주자 신분의 주변인(周邊人)으로서가 아닌 당당한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은 100년이 넘는 동안 중국사회에서 한족(漢族)을 포함한 기타 민족들과 공동으로 생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자기 민족의 전통문화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 조선족의 문화는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중국의 다양한 문화가 상호 융합된 중국 조선족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중에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 및 한민족문화와 중국문화가 어우러져 형성된-중국의 기타민족과 같은 국민의식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들과 구별되는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의 한민족과 혈연적 유대와 동일한 문화적 근간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들과 구별되는 국민의식과 문화양식을 갖고 있는-중국조선족만의 독특한 정체성 즉 독립정체성 등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연구가 실증적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동시에 실증적 연구 과정에서도 중국 조선족의 범위를 대학생, 유학생,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시켜 전반 조선족을 아우르는 정체성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의 거주지역, 사회계층, 세대 등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선, 연변지역 조선족을 중국 조선족으로 포괄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동북3성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조선족 집거구역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각 지역의 이주민들의 한반도에서의 생활지역도 부동한 것이다. 즉 부동한 집거구역 거주민들의 조상의 고향이 부동함에 따라 그들의 고국관과 민족의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한 사회계층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양상에 따라 조선족 정체성을 확고히 주장하거나 기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 Ⅲ. 분석대상 및 분석 변인

#### 1. 분석대상

본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국의 조선족 주요 집거지(동북3성, 북경,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국에 체류 중인 20세 이상의 조선족을 위주로 하였으며, 국민의식 등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및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표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반 중국 조선족을 망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할당 표집(quota sampling)방법을 통해 추출하였고 지역과 연령층 및 성별에 의한 할당량은 2000년 제5차 중국인구조사통계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중국인구조사통계결과(표1, 표2 참조)에 근거하여 지역분포에 근거한 할당량은 연변지역 250부, 연변을 제외한 길림성 기타지역 50부, 흑룡강성 50부, 요녕성 50부, 청도 40부, 북경 40부, 한국 100부, 기타지역을 20부로 하였다. 연령층에 근거한 할당량은 20대 150부, 30대 150부, 40대 150부, 50대 이상 150부로 하였다. 성별에 근거한 할당량은 남녀 각 300부로 하였다.

〈표 1〉 지역별 조선족 인구분포(2만명 이상)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전국총계	1,242,612,226	640,275,969	602,336,257
조선족 총계	1,923,842	956,946	966,896
북경시(北京市)	20,369	9,416	10,953
요녕성(遼寧省)	241,052	118,885	122,167
길림성(吉林省)	1,145,668	571,437	574,251
흑룡강성(黑龍江省)	388,458	195,224	193,234
산둥성(山東省)	27,795	13,032	14,763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국(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

〈표 2〉 연령별 조선족 인구분포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조선족 총계	1,923,842	956,946	966,896
20대	283,967	146,728	137,239
30대	385,024	196,394	188,630
40대	362,670	184,469	178,471
50대	202,353	98,674	103,679
60대이상	141,158	91,163	130,085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국(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

조사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변지역과 한국의 조사는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기타 지역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600부의 설문지 중 연변지역 243부, 길림성 기타지역 45부, 흑룡강성 40부, 요녕성 34부, 청도 32부, 북경 34부, 한국 98부, 기타지역 15부로 총 519부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약 86.7%였으며, 이중 무응답 혹은 이중응답, 성의 없는 응답 등의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506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506부였고, 최종 응답률은 84.3%로 집계되었다.

## 2. 분석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박일화가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와 ZHANG, XIANMEI가 재한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관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정체성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해 있는 중국 조선족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sup>25)</sup> 이 척도는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독립정체성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단계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을 한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갖는 문화적 혈연적 심리적 상태의 공동성 유지로서 민족정신, 민족감정, 민족의식 등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 요소의 공동체성의 의미로 규정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민족정체성은 민족언어사용의식, 민족교육유지의식, 민족혈통보존의식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민족언어사용의식은 일상생활에서 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의 강도를 의미한다<sup>26)</sup>. 민족교육유지의식은 민족교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신념을 의미한다. 민족혈통보존의식은 타민족 혹은 타인종과의 통혼을 거부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혈통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총10문항으로, 즉 민족언어 사용의식에 관한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사용한다”, “조선족과의 대화에서 조선어를 사용한다”, “공중장소에서 통화 시 조선어를 사용한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조선어를 사용한다” 등 4문항, 민족교육 유지의식에 관한 “자녀를 조선족학교에 보낼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것을 지지한다”, “민족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등 3문항, 민족혈통 보존의식에 관한 “타민족과

25) 박일화,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전남: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ZHANG, XIANMEI, “재한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관”(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6) 최영관,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중국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의 결혼을 반대한다”, “조선 및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 “다른 국적소유자 및 인종과의 결혼을 반대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민족언어 사용의식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18, 민족교육 유지의식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93, 민족혈통 보존의식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672로 나타났으며, 이들 하위영역을 합하여 구성된 민족정체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41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 결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60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총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민족정체성 변인의 값으로 규정하였다.

## 2)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으로서 상상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 또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27)</sup>. 동시에 국민정체성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s)과 감정(feelings)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sup>28)</sup> 본 연구에서 국민정체성을 애국심과 통일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애국심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애착, 자긍심, 헌신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일관은 그 나라의 영토완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포함한다.

국민정체성은 총14문항으로, 즉 애국심은 “중국에 재해가 일어나면 가슴아프다”, “중국 선수들의 우승을 바란다”, “중국을 비하하는 기사가 싫다”, “중국이 세계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의 전통문화가 자랑스럽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자랑스럽다”, “중국국민임이 자랑스럽다”, “중국의 올림픽개최가 자랑스럽다” 등 8문항, 통일관은 “대만은 자고로 중국영토이다”, “티베트는 자고로 중국 영토이다”, “신장 위구르자치구는 자고로 중국 영토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애국심의 Cronbach's  $\alpha$  값은 .936, 통일관의 Cronbach's  $\alpha$  값은 .945로 나타났으며, 이들 하위영역을 합하여 구성된 국민정체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34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 결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60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총 14문항의 평균값을 국민정체성 변인의 값으로 규정하였다.

## 3) 독립정체성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조선족의 독립정체성은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한족(漢族)을 비롯한 기타 55개 민족과 구별되는 동시에 한국과 조선(북한)의 조선민족들과도 구

27) Gellner, 위의 글. Jones and Smith, 위의 글.

28) 정기선, 위의 글. Wiggig, J. A., B. Wiggins, and J. V. Zanden.,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 1994.

별되는 중국 조선족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정체성을 중국 및 한반도의 문화와 구분되는 독특한 민족문화와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적 긍지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독립정체성은 총 7개 문항으로, 즉 독특한 민족문화는 “조선족의 문화와 조선 및 한국의 문화는 다르다”, “조선족은 조선 및 한국과는 다른 조선족만의 문화가 있다”, “조선족의 문화는 중국문화와 한민족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이다”, “조선족은 혈통적으로는 조선 및 한국인과 같지만 문화적으로는 다른 면이 많다” 등 4문항, 민족적 긍지감은 “조선족임이 자랑스롭다”, “조선족의 민족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롭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의 하나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독특한 민족문화의 Cronbach's  $\alpha$  값은 .779, 민족적 긍지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752로 나타났으며, 이들 하위영역을 합하여 구성된 독립정체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31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 결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60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총 7문항의 평균값을 독립정체성 변인의 값으로 규정하였다.

#### 4) 사회인구학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및 독립정체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성장환경, 출신지역, 한국방문경험,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응답 사례수는 총 506명이었으며,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245명(48.4%), 여자가 261명(51.6%)으로 성별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조사되었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46명(28.9%), 30대가 119명(23.5%), 40대가 140명(27.7%), 50대 이상이 111명(19.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연변지역출신이 368명(72.7%)으로 제일 많이 조사되었고, 동북3성 등 기타지역 출신이 138명(27.3%)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를 살펴보면 3세대가 365명(72.2%), 4세대 141명(27.9%)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한 응답자가 176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재학 이상이 89명(17.6%), 고등학교 졸업 89명(17.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방문경험을 살펴보면 한국방문경험이 있는 재중 응답자가 99명(19.6%),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응답자가 98명(19.4%),

〈표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45	48.4
	여	261	51.6
연령	20대	146	28.9
	30대	119	23.5
	40대	140	27.7
	50대 이상	111	19.9
출신지역	연변	368	72.7
	기타지역	138	27.3
이주세대	3세대	365	72.2
	4세대	141	27.9
교육수준	대졸이하	241	47.6
	대졸이상	265	52.4
한국방문경험	유	99	19.6
	제한	98	19.4
	무	309	61.1
소득수준	상	63	12.5
	중	295	58.3
	하	148	29.2
성장환경	도시	244	48.2
	농촌	262	51.8
전체		506	100

한국방문경험이 없는 재중 응답자가 309명(61.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수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스스로가 상층이라고 여기는 응답자가 63명(12.5%), 중간수준이라고 여기는 응답자가 295명(58.3%), 하층이라고 여기는 응답자가 148명(29.2%)으로 나타났다.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도시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244명(48.2%), 농촌에서 성장한 응답자가 262명(51.8%)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집단간의 평균 차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성장환경 및 출신지역에 따라 민족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의 경우 20대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8356, 30대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7319, 40대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7750, 50대 이상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9960으로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성별	남	245	3.8359	.48394	503.198	.403	.687
	여	261	3.8176	.53665			
교육수준	대졸이하	241	3.8992	.49489	502.774	3.081	.002
	대졸이상	265	3.7604	.51806			
성장환경	도시	244	3.7566	.52626	493.761	-2.984	.003
	농촌	262	3.8916	.48920			
출신지역	연변지역	368	3.8927	.45563	198.357	4.285	.000
	기타지역	138	3.6500	.60391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한국방문경험	제한	98	3.7510	.65586	집 단간 = 2 집 단내 = 503 합 계 = 505	2.217	.110
	유	99	3.9040	.45779			
	무	309	3.8256	.47211			
	합계	506	3.8265	.51139			
소득수준	상	63	3.8444	.59940	집 단간 = 2 집 단내 = 503 합 계 = 505	.050	.951
	중	295	3.8258	.48755			
	하	148	3.8203	.52085			
	합계	506	3.8265	.51139			
연령	20대	146	3.8356	.51938	집 단간 = 2 집 단내 = 503 합 계 = 505	5.700	.001
	30대	119	3.7319	.50906			
	40대	140	3.7750	.49083			
	50대이상	101	3.9960	.49536			
	합계	506	3.8265	.51139			

50대 이상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가장 높게, 30대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왔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변량분석 결과 F값이 5.700(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50대 이상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기타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8992,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7604로,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보다 .1388 높게 나타났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t값이 3.081(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로, 성장환경의 경우 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7566, 농촌에서 성장한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8916으로 농촌에서 성장한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도시에서 성장한 집단보다 .135 높게 나타났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결정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t값이 -2.984(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의 경우 연변지역출신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9827, 기타지역출신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은 3.6500으로 연변지역출신 집단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기타지역출신 집단보다 .2427 높게 나타났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t값이 4.285(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민정체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민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집단간의 평균 차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민정체성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성별	남	245	4.3279	.58487	478.474	-1.767	.078
	여	261	4.4132	.49335			
교육수준	대졸이하	241	4.3447	.47228	494.881	-1.088	.277
	대졸이상	265	4.3965	.59606			
성장환경	도시	244	4.3637	.55962	494.619	-.326	.745
	농촌	262	4.3795	.50352			
출신지역	연변지역	368	4.3625	.52980	231.041	-.612	.541
	기타지역	138	4.3967	.57015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한국방문경험	제한	98	4.3231	.58232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884	.414
	유	99	4.3418	.47834			
	무	309	4.3970	.54604			
	합계	506	4.3719	.54075			
소득수준	상	63	4.3796	.50685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572	.565
	중	295	4.3514	.53792			
	하	148	4.4093	.56141			
	합계	506	4.3719	.54075			
연령	20대	146	4.4429	.56805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1.642	.179
	30대	119	4.3270	.58747			
	40대	140	4.3185	.53944			
	50대이상	101	4.3960	.42743			
합계	506	4.3719	.5407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중국 조선족의 국민정체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정체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집단간의 평균 차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정체성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확률
성별	남	245	3.8184	.62983	500.589	-.390	.696
	여	261	3.8400	.61787			
교육수준	대졸이하	241	3.7261	.61467	499.833	-3.602	.000
	대졸이상	265	3.9236	.61704			
성장환경	도시	244	3.9078	.57842	502.609	2.755	.006
	농촌	262	3.7567	.65485			
출신지역	연변지역	368	3.8363	.64133	273.070	.417	.677
	기타지역	138	3.8116	.57377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값	유의확률
한국방문경 험	제한	98	3.9617	.66227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3.145	.054
	유	99	3.7500	.64976			
	무	309	3.8131	.59699			
	합계	506	3.8295	.62317			
소득수준	상	63	3.8810	.66578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459	.632
	중	295	3.8085	.60484			
	하	148	3.8497	.64269			
	합계	506	3.8295	.62317			
연령	20대	146	4.1517	.43403	집 단 간 = 2 집 단 내 = 503 합 계 = 505	5.167	.002
	30대	119	4.0480	.45794			
	40대	140	3.9418	.49662			
	50대이상	101	3.9915	.49107			
	합계	506	4.0373	.47485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에 따라 독립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의 경우 20대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4.1517, 30대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4.0480, 40대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9418, 50대 이상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9915로 20대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이 가장 높게, 40대의 민족정체성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왔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변량분석 결과 F값이 5.167(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20대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이 기타 연령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7261,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9236으로,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이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보다 .1975 높게 나타났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t값이 -3.602(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집단이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집단에 비해 보다 강한 독립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환경의 경우 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9078, 농촌에서 성장한 집단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은 3.7567로 도시에서 성장한 집단의 독립정체성 평균값이 농촌에서 성장한 집단보다 .1511 높게 나타났다. 집단사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t검정 결과 t값이 2.755(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독립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중국조선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조선족 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족정체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성장환경,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독립정체성의 경우에는 연령,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조선족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출신지역,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이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출신지역의 경우 연변지역출신 조선족들이 기타지역출신의 조선족들보다 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족 집거지역출신의 조선족들이 한족이나 기타 민족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더 강한 민족적 유대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민족문화전통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조선족들이 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민족 전통문화보다는 보다 폭넓은 중국문화에 접촉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낮은 학력수준에서 접한 민족전통문화교육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표 7〉 조선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계수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독립정체성		
	$\beta$	S.E	$\beta$	S.E	$\beta$	S.E	
성별	-.020	.044	.091	.049	.014	.055	
교육수준	-.114**	.048	.055	.053	.155**	.059	
성장환경	-.171***	.048	-.028	.053	.055	.059	
출신지역	.283***	.052	-.035	.057	.067	.064	
한국방문경험	재한 <sup>a</sup>	-.034	.060	-.069	.066	.207**	.074
	유 <sup>a</sup>	.077	.058	-.048	.065	.013	.072
소득수준	.066	.069	.029	.076	.038	.086	
연령	-.039	.049	-.006	.054	-.179**	.060	
상수	3.775	.066	4.357	.064	3.704	.082	
R <sup>2</sup>	.094		.014		.064		
빈도	506		506		506		

\*p<.05, \*\*p<.01, \*\*\*p<.001

a-한국방문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준거집단으로 함

으로, 성장환경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더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타민족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민족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령요인이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기타 요인을 통제한 결과 연령요인은 중국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조선족의 국민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재의 중국 조선족은 자신들을 과거민족이나 이주집단으로서가 아닌 중국의 기타 55개 민족과 동등한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 교육수준 및 한국체류여부가 조선족의 독립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령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강한 독립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이주민 2세

대<sup>29)</sup>에 속하므로 이주민 1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비교적 폐쇄적인 조선족공동체에서 생활한 기간이 기타 연령대보다 길며, 청년시기에 문화대혁명 시기의 시련을 거쳤으므로 기타 연령대에 비해 보다 강한 전통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개혁·개방(1978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보다 유동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민족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족(漢族)문화를 포함한 기타 문화를 용납하게 됨으로써 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결합된 중국 조선족이라는 독립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한 독립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력수준의 조선족들이 보다 유동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민족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족(漢族)문화를 포함한 기타 문화를 용납하게 됨으로써 조선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결합된 중국 조선족이라는 독립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체류여부의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비해 더 강한 독립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받는 차별 등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보다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연령요인이 독립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방문경험은 독립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요인을 통제한 결과 연령요인은 중국조선족의 독립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한국방문경험이 독립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사회는 비단 한민족의 교류의 장뿐 아니라 한중 경제·문화 교류의 매개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

29) 기존의 재외한인 연구에서 세대를 친족계보 상에서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동일한 항렬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반도(혹은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1세, 그들의 자녀를 2세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을 1.5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윤인진(1996)은 재미한인의 1.5세를 '한국에서 낳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로 규정한다. 물론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주 역사가 100여 년에 달함으로 기타 재외한인에 비해 1.5세는 거의 생존해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의 경우 1.5세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들을 1세로, 그들의 자녀를 2세로, 그다음 세대를 3세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동북아연구〉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들은 다문화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구성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가 순조롭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향후 남북통일과정에서 이질적인 남북문화를 융합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이주세대, 출신지역, 교육수준, 경제수준, 한국방문경험) 중 어떠한 요인이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및 독립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성장환경의 경우,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 이하 학력소지자집단이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집단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의 경우, 연변지역출신 조선족들이 기타지역출신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국민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인구학적 요인 수준에서 국민정체성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조선족이 전반적으로 중국 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정체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환경의 경우,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보다 더 강한 독립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출신지역,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 등 요인이 중국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이 타민족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민족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할 확률일 높으므로 성장환경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학력의 소지자일수록 한족문화를 포함한 기타 민족 문화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 문화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집거구역출신의 조선족들의 경우 한족이나 기타 민족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성장한 조선족들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민족문화를 습득하고 민족문화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 높은 민족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정체성의 경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한국체류상황 등 요인이 중국조선족의 독립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이 이주민 2세대<sup>30)</sup>에 속하므로 이주민 1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비교적 폐쇄적인 조선족공동체에서 생활한 기간이 기타 연령대보다 길며, 청년시기에 문화대혁명 시기의 시련을 거쳤으므로 기타 연령대에 비해 보다 강한 전통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개혁·개방(1978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보다 유동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민족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족(漢族)문화를 포함한 기타 문화를 용납하게 됨으로써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결합된 중국 조선족이라는 독립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학력수준의 조선족들이 보다 유동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민족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한족(漢族)문화를 포함한 기타 문화를 용납하게 됨으로써 조선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결합된 중국 조선족이라는 독립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이질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보다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 중 출신지역, 교육수준 및 성장환경 등 요인들이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한국체류상황 등 요인들이 국민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또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바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호화하여 통계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실증적 연구가 워낙 부족하였고,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측정도구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체로 구조화된 측정

30) 기존의 제외한인 연구에서 세대를 친족계보 상에서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동일한 항렬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한반도(혹은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1세, 그들의 자녀를 2세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을 1.5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윤인진(1996)은 재미한인의 1.5세를 '한국에서 낳고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로 규정한다. 물론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주 역사가 100여 년에 달함으로 기타 제외한인에 비해 1.5세는 거의 생존해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의 경우 1.5세가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들을 1세로, 그들의 자녀를 2세로, 그다음 세대를 3세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동북아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은 검증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의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질문의 형식, 척도의 분류 등 면에서 수정 보완하여 더 정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직업과 계층 등 면에서 상응한 비율에 따라 표집되었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응답자의 경우 여건의 제한으로 인해 응답자 중 중산층 이상의 응답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을 조사함에 있어서 거주지역, 사회계층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호화하여 통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형성된 심층적인 원인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는바, 후속연구에서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재식,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7호, 2000.
- 권태환,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2000.
- 김강일·허명철, 『中國朝鮮族社會的文化優勢和發展戰略』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01).
- 김용범, “중국내 조선족의 국적과 이중 정체성” 『北韓』 제250권, 1992.
-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1993).
- 박일화,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전남: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에릭슨(E. H. Erikson), 김병수 역, 『자아발견과 인상관리』 (서울: 경문사, 1995).
- 윤인진, “재미 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在外韓人研究』 제6권 1호, 1996.
- 윤인진, “중양아시아 한인의 言語와 民族正體性” 『在外韓人研究』 제7권 1호, 2004.
- 윤인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2009.
- 이상주,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조” 한국행동과학연구소(편) 『국가발전과 청소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7
- 이종각, 『교육인류학의 탐색』 (춘천: 하우, 1997).
- 이종목, “중국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족의 교육환경과 문제” 『99년도 사회과학연구소 해외한인연구 학술세미나』, 1999.

-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7권2호, 2001.
- 임진철, “조선족 사회 발전전략과 초록 민족공동체 발전구상” 『재한 중국조선족경제문화발전협회 <동북아시대 조선족사회 발전을 위한 귀향 아리랑 문화축제와 국제학술심포지>, 2005.
- 임채완,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1999.
- 임채완·김경학,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1호, 2000.
- 정기선,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제1차 한국 종합사회조사 (KGSS) 심포지움』, 2004
- 정판룡, “중국 조선족과 남북관계” 『조선대 동북아연구』 제13집, 1996.
- 정판룡, 『세계 속의 우리 민족』 (심양: 룡녕출판사, 1996).
- 조윤덕,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 (강원: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차기태, “고교생의 국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인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최영관,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중국 한인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최우길,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학회 1998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최 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민의식(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5권2호, 2007.
- 황승연,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조사연구” 『아태연구』 제1권, 1994 .
- Bradley, H., *Fractured Identities: Changing Patterns of Inequality*. London: Polity Press, 1996.
- Burubaker, 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Gellner, E.,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 Habermas, J.,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B. van Steenberg,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20-35. London, 1994.
- Hjerm, 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1(4): 335-347, 1998.
- Hjerm, 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1(4): 335-347, 1998.
- Jones, F., “Diversities of National Ident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Australian Case.” *National Identities* 2(2): 175-776, 2000.
- Jones, F. L. and Smith, F.,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2001.
- Smith, A. D.,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1.
- Shibutani, T., and K. Kwan.,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96.
- Uba, L.,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1994.
- ZHANG, XIANMEI, “재한 조선족 유학생의 한국관”(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Wigging, J. A., B. Wiggins, and J. V. Zanden.,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 1994.

〈동북아연구〉

《Abstract》

## Determinants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Role of Socio-Demographic Attributes

Hwang, Seung-Yeon · Kim, Joong-Baeck · Park, Jeong-Gun

Previous research of identity for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hereafter ethnic Koreans) has primarily concentrated upon essays rather than empirical studies.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on ethnic Koreans limit study subjects to students studying abroad, college students, guest workers, and female immigran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therefore, those studies have a limitation to reveal social determinants of identity for ethnic Korea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socio-demographic attributes are associated with identity for ethnic Koreans who come from various geographical backgrounds and social strata. Our findings of T-Test or ANOVA analyses show that (1) age, education, origin of birth, and growing background are associated with people identity, (2) no socio-demographic attributes ha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nation identity, and (3) age, education, and growing background are associated with independent identity.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including all variables reveal that education, origin of birth, and growing background are associated with people identity, and age, education, and experience of visiting Korea are associated with independent identity.

Key Word :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Identity, Nation identity, People identity,  
Pndependent identity

투고일 : 2011.6.25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